

현안과제연구

2013. 7. 11

#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서해안 비전 구상

정종관 외

# 차 례

1. 비전 수립 배경 .....	1
2. 비전 수립 원칙 .....	1
3. 비전 도출 체계 .....	2
1. 신 해양시대의 도래와 서해안 .....	2
2. 서해안 시대의 국가정책 방향 .....	3
3. 충남 서해안권의 위상 .....	4
4. 충남 서해안권의 잠재력 .....	4
5. 비전 .....	6
6. 목표 .....	6
7. 부문별 전략방향 .....	6
8. 부문별 발전전략 .....	8
〈별표〉 서해안 비전 구상도 .....	39

## 1. 비전 수립 배경

- [서해안의 중요성 증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가 급부상하여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 뿐 아니라, 향후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등 환황해경제권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 중심에 서해안이 있음.
- [대선공약] “충남을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으로 삼겠다.”
- [대통령 축사] “충남이 서해안시대 중심이자, 최적의 거점” - 정부와 충남도가 함께 이뤄가야 할 미래의 비전
- [도지사 기념사] “내포시대의 새로운 100년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환황해경제권의 중심” - 내포시대 개막을 계기로 海洋強道로서의 발전전략을 수립, 내포신도시를 충남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도정방향을 제시
- [도청이전 기념 심포지움]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미래비전” - 충남도는 항만물류 및 해양수산 전담조직을 꾸려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며, 이를 위해 서해안 철도 및 대산항 조기 건설 천명
- [서해안 비전 수립의 필요성]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경제권은 세계 최대의 생산과 소비시장으로 부상 중. 따라서 서해안 발전의 최적의 거점인 충남은 서해안 발전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여 환황해경제권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함. 이러한 비전설정은 충남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기초가 될 것임.

## 2. 비전 수립 원칙

- [정책지속성] 충남의 도정지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연속성 유지

-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적 비전 : 서해안 시대의 중심, 환황해경제권을 선도할 충남의 도정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 [변화대응성] 경부축에서 서해안으로 발전의 지역 중심축(development axis gravity) 이동에 따른 적극 대응
- [창조성] 지역자원과 역량에 바탕을 둔 비전 : 충남 서해안이 보유한 자원, 산업 등 지역성에 근거한 비전
- [포용성] 이해당사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비전 :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이 비전 도출과정에 참여해 설정한 비전
- [차별성] 다른 권역과 차별화된 비전 : 서해안 마케팅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서해안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비전

### 3. 비전 도출 체계

#### 1

#### 신 해양시대의 도래와 서해안

- 해양자원의 탐사·영해·경제수역 규정 등 바다에 관한 모든 질서를 담고 있는 ‘UN해양법조약’의 발효로 신국제해양질서의 도래
- 해양자원의 중요성 부각: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가 40% 정도 급증하여 자원 수급 불균형의 심화되어 ‘자원민족주의’가 부상하며 한국 등 자원빈국을 위협하는 등 자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양 자원에 주목
  - 석유자원의 경우 전체 매장량의 1/3인 1.6조 배럴의 매장량
  - 고체 가스인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인류가 5,000년 사용 가능
  - 구리, 망간, 니켈, 코발트, 금, 아연 등의 중요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상당하고, 이 중 일부는 육상 매장량 보다 많음

-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생물종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원천이 되는 다양한 자연자원의 보고로서 해양자원의 중요성 부각
- 환황해경제권이 세계 경제의 핵심 요지로 부상으로 해양 물류의 중요성 증가
  -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 인구의 31%, 세계 GDP의 20%, 세계교역의 22%를 차지(자료 : UN, 세계인구연감 자료, 2012)
  - 2020년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
  - 한·중·일 3국을 접하는 황해가 과거 중세시대의 지중해와 같은 세계 경제의 '관문'이 될 것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로 항만물동량은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서유럽은 25.6%('90)→14.4%('15), 북미는 19.1%('90)→7.4%('15))이나, 동아시아는 26.0%('90)→40.7%('15)급성장 전망.(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동량 자료, 2013)

## 2 서해안 시대의 국가정책 방향

- 박근혜정부는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 ①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② 전통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③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④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할 계획
- 국정목표인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를 국정 과제로 설정
- 주요 추진계획으로 마리나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경제영토개척, 체계적인 해양관리 등을 추진

### 3

### 충남 서해안권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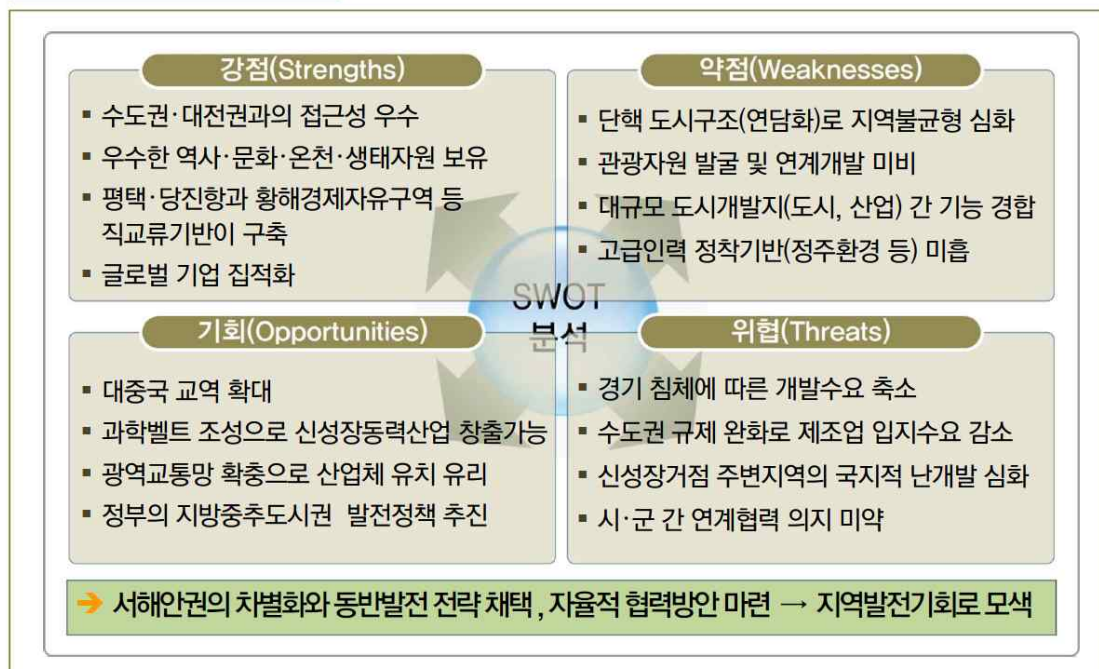
- [국제적 관점] 해상교역의 관문이자 선진외국 문물전래지인 내포와 국제해상왕국으로서의 백제를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국제관문(Global Gateway) 역할을 수행
- [국가적 관점] 지난 반세기에 걸친 경부축 중심의 폐쇄적 국토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 반세기는 해양개방축을 형성을 위해 충청 서해안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
- [광역적 관점] 서해안시대 최적의 거점인 내포신도시는 충남 서북부 발전 지역의 효과를 낙후된 남부지역에 전달해 주는 혁신거점, 균형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 4

### 충남 서해안권의 잠재력

- (입지여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위상 제고
  - 중국 경제의 부상 및 환황해 경제권의 도래로 중국 및 서해안과 접하고 있는 충남의 새로운 가능성이 부각
- (자연환경) 풍부한 해양자원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
  - 리아스식 해안으로 271개 도서와 대규모 갯벌이 분포되어 있고, 겨울철 조류 도래지 등 건강한 생태환경을 보유
- (제조업)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를 점하는 산업경쟁력 보유
  - 기존의 주력산업 기반 집적이 탁월하여 초광역 융·복합형 산업벨트로 산업경쟁력을 보유
    -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디스플레이
- (관광휴양) 고유한 역사·문화·환경 자원의 보고

- 청정하고 수려한 해양·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문화·체험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
- (항만물류) 동북아 국제비즈니스·물류 중심도시로서 역할 가능
  - 대중국 항만물류산업 핵심지역이며, 21세기 동아시아 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하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로 적지
- (농수산업) 세계적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 보유
  - 서해안권은 우수한 농수산물 원료와 발효 가공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식품을 육성시키기 위한 여건이 충분
  - 풍부한 어업자원과 천혜의 갯벌을 보유
- (지역발전여건 종합) 지역 특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지역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부로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
  - 지역 특화발전이 가능하도록 내재적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부자본 활용 전략 요구



## 5

### 비전

○ 비전 : 1안. 환황해권 시대의 출발점, 충청남도!

2안. 환황해권 경제의 시작, 행복 충남!

○ 비전의미

- 신해양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 세계 경제의 중심에 환황해권 경제가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서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서해안 개발
- 충남은 전세적으로 주목받는 서해안 시대 중요한 거점이자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

## 6

### 목표

- 목표 1. 환황해권의 시대에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
- 목표 2.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조기정착
- 목표 3. 환황해권의 글로벌 경제거점 조성
- 목표 4. 환황해 국제관광 및 민간교류 활성화
- 목표 5.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해양강국 도약
- 목표 6. 지역간 신균형발전 전략으로 상생발전
- 목표 7.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 7

### 부문별 전략 방향



○ 전략 1. 물류 차원에서 **환황해경제권의 직교류기반 구축과 해양 분쟁에 대비한 해양주권 강화**

-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육성과 세종시의 국제도시화(관문항만)를 지원하기 위해 서해안 항만과 내륙간 광역교통망을 구축
- 어촌마을의 창조적 재생과 최서단 무인도서(격렬비열도)의 유인화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

○ 전략 2.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으로 성장거점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선도**

- 내포신도시를 충남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주변도시와의 동반발전을 유도

○ 전략 3.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환황해경제권 성장거점구축**

-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평택·당진항 배후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견인

○ 전략 4. 해양레저 산업화와 국제관광거점 조성을 통한 **관광교류 증진**

-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 및 특별관심관광(SIT)상품\*을 개발

\* 철새도래지 ~ 온천 ~ 슬로시티(Slow City) ~ 갯벌(mud) ~ 국립생태원

○ 전략 5. 서해안 연안의 **지역잠재력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어장환경을 복원하고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통한 어민 소득을 증대
- 연안환경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가속되는 연안침식,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

○ 전략 6. 지역간 신균형발전 전략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선도

-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등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전략 7. 서해안 어업자원 보존과 갯벌어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서해안 생태·환경 보전과 전략 수산물 육성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 8

## 부문별 발전전략

### 부문별 계획 1 -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해양물류의 거점화

#### 1) 국제환경 변화

○ 세계경제의 경제의 중심이 2050년에는 아시아가 52% 수준으로 급부상하고 (ADB, Asia 2050; Realizing the Asian Century, 2011),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시아가 2020년에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심기섭, 미래지향적 항만정책의 개편방안, KMI, 2013)

- 항만물동량이 서유럽은 25.6%('90)→14.4%('15), 북미는 19.1%('90)→7.4%('15)이나 동아시아는 26.0%('90)→40.7%('15)로 급성장 전망

- 우리나라도 아세안이 10.9%('10), 11.6%('11)로 증가한 반면, EU는 11.0%('10), 9.8%('11)로 감소 추세

○ 세계 컨테이너물동량은 2009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Drewry, Container Market 2012/13: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12)

- 2016년까지 세계 컨테이너물동량 연평균 7.4% 증가, 8억 4,200만 TEU 전망

- 물류비용 감축을 위해 선박대형화 추진, 대형 선사간 전략적 제휴, 인접 항만만을 대상을 양항공략 전략 추진, 중국의 항만건설 및 배후권역 연계 네트워크 확대 전략 추진 등 경쟁 심화

## 2) 국내환경 변화

- 항만시설 분야 투자규모의 비중이 지속적 감소('04, '12 비교)
  - 철도 25.0% → 26.5%, 수자원 9.7% → 12.6%, 물류 3.4% → 8.2%으로 유지 및 증가추세인데 반해, 도로 46.0% → 33.6%, 항만 9.7% → 7.1%로 감소
- 항만시설 확보율을 OECD 30개국과 비교하면, 비해안국가 6개국을 제외하고 24개 국가 중 중·하위권
  -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대비 항만시설확보율(1천TEU 처리실적 당 선석길이)은 노르웨이가 1위(18.03), 스웨덴이 2위(10.11), 한국은 1.39로 23위
  - 무역액 대비 항만시설 확보율(1억달러 당 안벽확보길이)은 뉴질랜드가 1위(15.37), 그리스가 2위(8.00), 한국은 3.12로 12위

## 3) 국가 정책 동향

- 해양수산부 분리에 따라 해양, 항만 및 수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 비전으로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 제시
  - 해양영토 주권 강화, 해양 자원 창출, 해양환경 관리 선진화,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행복한 어민,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등 해양종합관리 방향 제시
  - 해양 신산업 육성,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항만산업의 국가 발전 거점화, 해양관광·레포츠 산업 양성 등 해양 산업 진흥 방향 제시
- 해양수산부 정책 중 영해 및 경제적 배타수역(EEZ) 관리, 항만별 특화 개발 추진 등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항만개발 추진
- 중부권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를 영해관리 거점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양경비역량 강화(대형 함정, 고속단정, 해경전용부두, 전진기지 확충 추진), 어

업질서 확립(불법조업 단속), 자원탐사기지 구축(해양 및 수산자원, 기후변화, 생태계 조사 및 관리)

- 외국인 투자유치와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한 항만 배후 단지 지속 공급, 해양·항만산업, 연구기능을 클러스터화하여 신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 마련(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마련('13년 하반기))

#### 4) 정책추진과제

##### □ 중부권 최서측 영토인 격렬비열도의 해양기지화

- 국가의 우주개발과 더불어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화와 함께 육·해·공 국토에 대한 다양한 탐사기지를 구축하여 영해 수호와 함께 자원의 보전 및 개발 그리고 국민과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체계적인 해양기지화를 도모
  - 중부권의 영해 기준이 되는 격렬비열도를 유인도화하기 위한 노력 추진 (충남도, 태안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 대전지방기상청, 태안해양경찰서 등 6개 기관)
  - 우리나라의 영해는 「영해및접속수역법」에서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다만, 대한해협은 3해리로 설정),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해양환경의 보전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을 준용

##### □ 국내·외 물류체계의 거점화

- 기존 교통망을 연결하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항만과 공항을 확충함으로써 진정한 대중국 등 환황해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물류체계 거점지역으로 육성
  - 충청권은 유일하게 남도만이 해양을 보유하고 있어 충청권 내에서의 연계가 필요(무역항이 5개소 지정, 서해안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가 통과, 장항선 등 4개 철도망이 충남을 순환, 서산비행장(현재, 군사용)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

- 충남 북부지역(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은 국제적인 산업기반과 이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집적, 평택·당진항의 물동량 급증과 양극(인천-부산) 중심의 물류체계로 인한 물류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새로운 물류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물류거점으로 부각
- 서해산업선 등 북부지역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항만과 연계하여 동서로 건설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충청권 항만의 기능 제고 및 활성화, 물류기반 확충에 산업경쟁력 강화 등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로 선순환적인 거점지역으로 육성이 가능

## 5) 핵심사업

### □ 해양기지 개발

- 해양관련 기지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단계적 체계적 개발을 추진

### □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및 연계 교통망 구축

- 급성장하고 있는 당진권의 항만을 확충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하며, 산업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물류교통망(철도망)을 구축

### □ 수산업의 6차 산업화 육성

- 1차 어업과 이를 가공·처리하는 2차 산업, 해양·수산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6차산업으로 산지에 조성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

### □ 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특성화 지원

- 섬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문화 및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 및 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부문	핵심사업	세부과제	추진단계			핵심사업
			단기	중기	장기	
환경해권 시대를 대비한 해양 물류의 거점화	해양기지 개발	· 기상관측시설 확충	○			
		· 해양자원탐사시설 개발			○	
		· 해양경비시설 설치		○		●
		· 생태환경조사 추진	○	○	○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및 교통망 구축	· 항만개발 조기 추진		○		●
		· 항만 배후물류시설 설치	○			
		· 산업철도 건설			○	
		· 항만물류시스템 구축운영	○	○	○	

## 부문별 계획 2 -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

### 1) 대외적 여건(세계적 트렌드 중심)

- 경제포럼기구인 다보스클럽은 2020년의 전지구적 트렌드(Global Trend 2020)로 환경생태와 에너지 자원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하고(The Age of Climate Change),
  - 고령화 사회(The Age of Aging) 및 여성 중심의 사회(The Age of Women)로 변해갈 것이고, 모든 사회계층이 혼합(The Age of Mixing)되어 글로벌화되는 사회가 조성되며,
  - 소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대의 변화를 선도(The Age of Creative Innovation)하는 사회를 전망하고 있음
- 도정 슬로건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람이 행복한 도시(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삶의 공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함

### 2) 대내적 여건(국정과제 중심)

- 부동산 개발 위주의 정책이 한계에 봉착해 기존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구하고, 생산기반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
- 박근혜정부는 지방의 거점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성장 에너지를 주변지역에 확산시키는 중추도시권 육성정책을 추진 중임
  - 미래 거점도시인 내포신도시와 주변 도시가 특화된 기능을 가지며 상생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3) 충남의 경쟁력(충남의 여건)

- 내포신도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서해안 발전의 출발점으로서 대중국 교류 중심지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 내포신도시는 국가발전을 위해 환황해권 경제권과 직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함
- 내포신도시는 광역적 차원에서 충남 도청 이전을 계기로 충청남도 공간구조 개편(다핵공간구조)이 예상됨
  - 내포신도시는 세종시, 천안·아산시와 삼각형 형태의 발전축을 이루면서 충남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함
- 내포신도시는 지역적 차원에서 서북부지역의 발전효과를 낙후된 남부지역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혁신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 내포신도시 자체의 성장동력을 조속히 발굴하고, 주변 시·군의 도시기능을 특화하여 도시 간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함

### 4) 정책추진과제

#### □ 서해안도시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 내포신도시가 서해안 중추도시와 연계·교류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

륙의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함

- 서해안 중추도시(한국, 중국) 상생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내륙과 연결하는 동서축 광역접근성을 개선하여 협력발전의 효과를 전파
- 해상교역의 관문이자 선진외국 문물전래지인 내포를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국제관문(Global Gateway)을 조성
- 대산항에 대중국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보령신항을 관광·물류 복합항만으로 재추진하며, 평택·당진항 내항을 글로벌 항만지대로 개발

## □ 내포신도시 중추도시권 육성

- 지역성장거점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내포 광역도시권을 10+α 중추도시권으로 발전시킴
- 미래 거점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성장 에너지를 주변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기능을 정하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함
- 중추도시권 3대 핵심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창조클러스터 구축(노후산업단지 재창조), 주민밀착형 생활인프라를 확충함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내포 광역도시권 대중교통 연계방안,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프로그램, 환경시설 공동이용 및 서비스 운용 효율화, 광역관광프로그램, 산업네트워크 구축 등을 특화함

## □ 내포신도시 정체성 강화

- 행정 및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도시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 발굴하여 랜드마크화
- 도시의 핵심공간(가로, 광장, 지구)을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장소마케팅(이벤트, 축제 등)을 통해 문화창조 허브도시로 조성
- 내포신도시는 모듈(module) 단위 완결형 도시로 단계별로 조성하고,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정주공간을 조성함
- 新개념의 전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기법에서부터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책까지 복합적으로 추진



## □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

- 내포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권역 단위의 자족성을 확보함
  - 내포신도시에 대표기업(Flagship Company)과 가젤(Gazelles)기업<sup>1)</sup>을 유치하고 수도권 전철 연장을 추진하며, 주변지역에 상생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
- 내포신도시에 다양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핵심시설(병원, 대학 등)을 조기에 유치
  - 민간투자 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등을 확보

##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관리

-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제어하면서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도시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취락지구 지정 등을 통한 주민밀착형 지원시책을 병행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홍성읍, 예산읍 등)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신도시 주변 소도읍에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충남 동남부지역에 도농상생복합단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등을 추진

---

1) 고용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급속히 성장하는 신생 중소기업

## 5) 2대 핵심사업

### □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마련

- 인구정착을 유도하는 도시핵심시설(산업시설, 병원 및 대학 등)은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에 따라 민간투자를 패키지로 유치함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조성방안, 수도권전철 연장(대선공약)을 전제로 병원과 대학의 패키지 유치 로드맵 등

### □ 내포신도시 랜드마크사업 추진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상생산업단지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랜드마크화하고 권역단위의 자족성을 확보함

부문	정책추진 과제	세부과제	추진단계			추진 주체	핵심 사업
			단 기	중 기	장 기		
내포신 도시의 성공적 건설	내포신도시 정체성 강화	· 문화창조 허브도시 조성	○	○		충남도	
		· 신개념 전원도시 조성	○	○		충남도, 시·군	
	내포신도시 자족성 확보	· 대표기업, 가젤기업 유치	○	○		충남도, 시·군	
		· 수도권전철 연장			○	충남도	
		· 상생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	○		충남도, 시·군	●
		·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마련	○			충남도	●
	내포신도시 중추도시권 육성	· 도시권 상생협의체 구성	○			충남도, 시·군	
		· 도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	○		충남도, 시·군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관리	·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	○		충남도, 시·군	
		· 신도시 배후 구도심 재생	○	○		충남도, 시·군	

## 부문별 계획 3 - 환황해권의 경제거점 조성

### 1) 대외적 여건(세계적 트렌드 중심)

- 환황해권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북아 베세토(BeSeTo : Beijing, Seoul, Tokyo)경제권 형성
- \* 「Grand Vision 국토 2040」(국토연), 서해안발전종합계획(국토부)中
  - 미국, 유럽으로 양분되던 세계경제의 중심이 중국경제의 생산과 소비확대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 중국의 동해안 3대 경제권(북경, 상해, 광둥)과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IT기반의 산업기술의 융·복합화와 신기술 개발 경쟁 가속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세계적으로 결합, 창조, 변화로 상징되는 융합사회로의 이행

### 2) 대내적 여건 (국정과제 및 정책방향 중심)

-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의 산업경제정책 운영방향의 변화와 IT 및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로의 이행
  - ICT중심의 융·복합화된 창조산업의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전환
- 공간적으로는 중국경제 및 환황해경제권의 부상 등에 따라 서해안의 중심지역인 충남을 새로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지역으로 육성
  - “충남을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대선공약)
  - “충남이 서해안시대 중심이자, 최적의 거점” 정부와 충청남도가 함께 이뤄가야 할 미래의 비전(개청식 대통령 축사)

### 3) 충남의 경쟁력(충남의 여건)

- 충남 및 서해안 지역의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성장
  - 경기-충남-전북을 연계하는 전자·반도체 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융·복합화가 진행되고 있음
- 국정방향에 있어 IT 및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로의 이행은 상대적으로 R&D기반 및 산업생태계가 미흡한 충남에 있어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 지역내 완결형 산업환경조성이 아닌 수도권, 대전 등과의 산업적 역량을 연계하여 확충하는 네트워크 발전체계의 구축이 필요

#### 4) 정책추진과제

##### □ 환황해권 시대 대한민국 경제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반도체·자동차 등 서해안권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 경기-충남-전북을 연계하는 항만 기반시설의 전략적 확충을 통한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거점 기능 강화
  -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대산 석유화학클러스터 구축 + 평택·당진항 융합 녹색기술지대 조성

##### □ 서해안 신성장거점도시로서 내포신도시의 전략적 산업 육성

- 새로운 서해안 경제권을 견인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 R&D 중심의 지식(서비스)산업 유치 및 전략적 첨단산업발전지대 조성
  - 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과 지속적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인력 확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차등 지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서해안권 경쟁력은 규모보다는 첨단기술과 산업기반 확대에 초점, 이를 위해 공간적·산업적 연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 내포신도시에 대표기업(Flagship Company)과 가젤(Gazelles)기업<sup>2)</sup>을 유치, 기존 기업 및 지원기관과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

####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 서해안 기반 레저수요의 다양화 및 고급화에 대처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기 등 항공레저와 요트 등 해양레저를 융합한 레저산업 콤플렉스 조성
  - 태안 항공레저 및 R&D 단지 조성, 서산 항공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 서해안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기존 주력사업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태안 에너지종합특구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조성) 등

### 5) 2대 핵심사업

#### □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핵심소재의 국산화 및 자립화를 통한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서해안 디스플레이 산업클러스터 구축
  - 아산(삼성)과 과주(LG)로 양분되는 디스플레이산업에 있어 서해안을 축으로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
- \* 현재 디스플레이 생산 및 수출은 세계 매출액의 45.6%(한국)중 충남이 전체 54.4%

#### □ 해양생태산업의 메카 조성

- 생태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해양생태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산업기반 조성 및 신에너지 개발 추진

---

2) 고용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급속히 성장하는 신생 중소기업

- 서천지역은 습지보호구역, 철새도래지, 해안사구, 갯벌 등의 천혜의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생태산업관련 기반시설이 입지

\*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 국립 생태원 건립,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 서천군의 해양·생태 환경과 연계한 미래산업 및 에너지 개발

부문	정책추진 과제	세부과제	추진단계			추진 주체	핵심 사업
			단기	중기	장기		
환경해권 경제거점 조성	환경해권시대 경제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조성	○	○		충남도	●
		· 첨단산업 연구·경영 지원단지 조성	○			국토부, 충남도	
		·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활성화	○			산업부, 충남도	
	서해안 신성장거점도시 내포신도시의 전략적 산업 육성	· 신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실 증단지 조성)	○			산업부, 충남도	
		· 서해안권 첨단산업 투자유치 마스 터플랜 수립(내포신도시 포함)	○			충남도, 시·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의 전략적 육성	· 비즈니스항공산업단지 조성 (항공산업 연구단지 조성)		○		국토부, 충남도	
		· 신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2차 전지 부품소재 클러스터 조성	○			산업부, 충남도	
		· 해양생태산업의 메카 조성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조성)	○	○		국토부 산업부, 충남도	●

## 부문별 계획 4 - 관광개발

### 1) 대외적 여건(세계적 트렌드 중심)

-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0~2020년간 국제관광객은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 2020년에는 15억 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은 2020년 세계 최대의 인바운드 시장, 세계 4위 수준의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관광소비의 확대
  - GDP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여가시간과 여가지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MICE산업, 크루즈, 의료관광, 골프, 요트 등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육성은 관광수입 및 외래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수요측면에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경제적 능력과 시간을 가진 은퇴자들이 중요한 관광소비층으로 부상
  - 시니어 가계의 소비규모가 2010년 130조원에서 2030년에는 432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보다 품격 높은 의료관광, 헬스관광,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농촌·생태관광뿐만 아니라 한류를 소재로 한 관광, 휴양형 리조트 관광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견
- 자연친화 관광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
  -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sup>3)</sup>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관광과 웰니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핵심 관광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2) 대내적 여건

- 박근혜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으로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마리나

3)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하면, 생태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생태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2012년까지 전체 관광의 25%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측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연계형 R&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도모

- 마리나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마리나 시설 확충,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바다생태관광·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 확장, 국적 크루즈 육성 등의 과제를 제시

○ 또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 활성화

-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 3) 충남의 경쟁력

○ 충남은 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국민관광, 복지관광, 산업관광, 휴양관광의 4대 목표에 8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서해안권 개발을 위해 내포신도시 명품관광도시 조성, 해양 관광거점 도시별 관광사업 추진,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국제 휴양관광명소 육성, 내포역사문화관광자원의 세계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서해안 지역을 내포문화관광권, 해양도서 관광권으로 설정하여 충남관광의 관문으로 활성화하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활용한 국제적 규모의 관광지 조성 및 생태자원인 철새,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 추진



#### 4) 정책추진과제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인프라 구축

- 국민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 확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해 레저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 레저수요에 대비해 해양레포츠 시설,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의 신설 및 개보수자금 지원 등 관광레포츠 기반시설 강화와 레저전문인력 육성 및 청소년 대상 해양레포츠 교육 기회 제공
- 항만재개발에 포함된 대천항,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2019)에 포함된 석문, 오천, 홍원, 보령항<sup>4)</sup>에 대한 잠재력 검토와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수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
- 크루즈 관광객 기반시설 조성
- 크루즈 전용부두 등 국내 항만내 관련 인프라 수요 증가가 전망되며, 2010년 크루즈 여객수는 17만5천명에서 2020년 28만5천명으로 증가할 전망
- 크루즈관광 조직, 법제도 정비 추진 및 항만·기항지 인프라 확충,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체험형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간 협력 강화,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쇼핑환경 조성, 시장저변 확대를 위한 크루즈 해외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 외국인 관광객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관광객 이용시설 마련
- 충남지역에 여객선을 통해 입항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먹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식당시설, 쇼핑시설, 안내판정비, 직원 교육 등의 패키지 시설 조성
- 충만 항만에 입항 후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변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4)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상 보령이 포함되었으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0년 현재 기개발·개발중인 마리나는 기개발 11개소, 개발중 5개소로 총 16개소로 1,304척(수용가능척수 : 1,028)이다.

- 쇼핑시설의 경우 면세점의 유치나 관광시장 조성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조성
  -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 거점 조성 지속 추진
- 보령, 태안, 서천의 해양관광권을 해양, 연안, 생태, 휴양 등의 세계적인 해양휴양관광지역으로 개발
- 안면도국제관광지(지포지구 포함) 조성,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 대천해수욕장 및 원산도관광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시설로 개발
- 해양, 역사문화, 온천 자원은 청주공항과 대산항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문화관광벨트로 발전

#### □ 내포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화

- 내포문화를 활용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생태계 구축
- 내포문화를 활용한 콘텐츠관광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유형별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과 콘텐츠기반형 관광자원 개발 확대 추진
- 내포문화 체험기반형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 관광상품으로 역사인물탐방, 불교문화탐방, 천주교성지순례 등 다양하게 개발
- 역사자원 관광상품화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 □ 서해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 충남의 갯벌과 철새를 활용한 생태관광지의 메카로 조성
- 지역의 생태자원인 갯벌과 철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
- 태안환경관광지구, 서산A·B지구 생태공원, 금강하구·유부도 철새생태공원, 신

성리 갈대밭 체험장, 구)장항제련소 생태교육장,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죽도 생태공원 조성 등 추진

○ 서해안 농어촌 관광자원화를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개발

- 서해안 농어촌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활용한 관광마을 사업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을 통해 충남 서해안 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민에 의해 계획, 조성, 운영되는 관광지 조성
- 읍·면단위 시골장터를 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주말 관광 시장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관광지구 조성

부문	정책추진 과제	세부과제	추진단계			추진 주체	핵심 사업
			단 기	중 기	장 기		
서해안 관광 개발	해양레저관 광 활성화 기반 구축	· 해양관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		충남도	
		· 크루즈 관광객 기반시설 조성	○	○		충남도, 시·군	
	외국인 관광객 수용시설 조성	· 중국관광객 이용시설 마련	○	○		충남도, 시·군	●
		·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 거 점 조성		○	○	충남도, 시·군	
	내포문화 콘텐츠 관광상품화	· 콘텐츠상품개발 생태계 구축	○			충남도, 시·군	
		· 내포문화 체험기반형 고품 격 관광상품 개발	○	○		충남도, 시·군	
	지역자원 활용 관광명소화	· 갯벌과 철새를 활용한 생태 관광지 조성	○	○		충남도, 시·군	●
		· 농어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개발	○	○		충남도, 시·군	

## 부문별 계획 5 -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관리

### 1) 대외적 여건

#### ○ 기후변화의 범지구적 대응 노력

-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관련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COP 18에서는 교토의정서 연장, 기후기금 장기계획수립, 선진국의 개도국지원, 온실가스감축 목표량 증대 등이 논의되었음

#### ○ 해양환경 보전 의무강화

-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를 통해 당사국의 해양오염 현황보고 및 환경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무 및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2) 대내적 여건(국정과제 및 정책방향 중심)

#### ○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 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추진

- 온실가스 감축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등의 관련사업을 추진, 계획중

#### ○ 사회전분야에 걸친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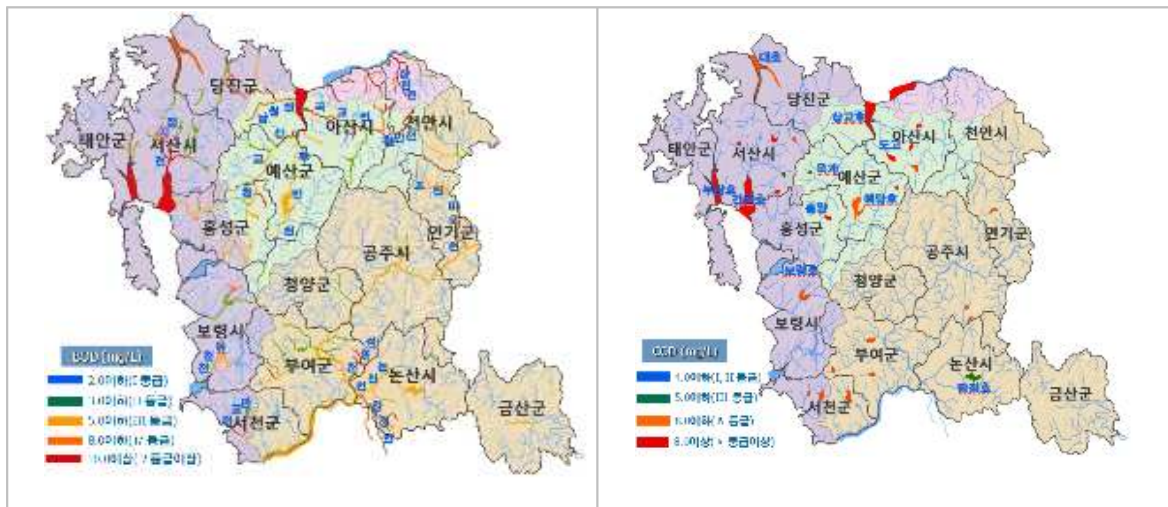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을 확보하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 지속한 해양환경 및 자원을 위한 현명한 이용 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ii) 오염퇴적물 정화 등 해양복원사업 실시, iii) 연안침식 가속화 문제 해소를 위해 ‘연안침식 관리구역제’를 도입하고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추진, iv)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선 보전을 위한 연안 지역 토지매입,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음

### 3) 충남의 여건

- 충남의 경우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화력발전소 과다 밀집해있으며 온배수의 해양유출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 변화 초래
- 서해안 유입 하천의 수질악화 심화
  - 서북부권 주요 하천(삼교호수계, 서해수계)의 경우 BOD 기준 IV~V등급으로 수질악화 현상 심화
  - 부남호, 간월호, 대호, 삼교호 등 대형담수호의 경우 COD 기준 IV~V등급으로 수질관리대책 필요



[그림 1] 충청남도 하천(좌) 및 호소(우) 수질등급도

- 갯벌면적 감소 및 서식지 질 저하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음
  - 새만금 공사로 인해 전북지역이 1987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충남이 30%감소 하였음
  - 갯벌생태계의 최상 포식자인 도요물떼새의 경우 과거 1996-1998년의 경우 1일최대 관찰개체수는 180,000여마리였지만 최근에는 최대 78,000여마리로 감소함

[표 1]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면적 감소 현황

(단위 : km<sup>2</sup>)

	1987년	2008년	비고	
인천·경기	1179.5	872.7	306.8 감소	25% 감소
충청남도	434.2	358.8	130 감소	30% 감소
전라북도	321.6	117.7	208 감소	65% 감소
전라남도	1179.1	1036.9	142.2 감소	12% 감소
부산·경남	89.1	103.3	-	-
합계	3,203.5	2,489.4	714.1 감소	22% 감소

#### 4) 정책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충남 서북부권 하천 및 서해 유입 대형 담수호의 관리 및 복원 방안 마련

□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같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제도화
- 기 수립된 도 및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발전소 및 대형에너지 소비 산업체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시제도 구축
- 화력발전소의 신규 입지를 억제하고 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실태를 규명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
- 기후변화적응의 경우 기 수립된 도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충실한 실천이 필요하며 국비 조달 등의 재정을 확보
-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을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연계
  - 재해 위험 취약지역 내 신규시설의 입지 불허 및 기 입주 시설 및 주택의 이주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

## □ 발전온배수 관리 방안 마련

- 충남 화력발전 온배수의 해양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도화
  - 현재 국가적, 지역적으로 발전온배수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발전 온배수의 제도적 관리방안 수립
  - 냉각수 취수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
  - 발전 온배수의 확산 구역 및 온배수의 배출 수온에 대한 제도적 규제로 온배수 배출 및 온배수 확산구역 사용허가 규정을 제정
  - 발전 온배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발전 온배수 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

## □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같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제도화
- 기 수립된 도 및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발전소 및 대형에너지 소비 산업체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시제도 구축
- 화력발전소의 신규 입지를 억제하고 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실태를 규명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
- 기후변화적응의 경우 기 수립된 도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충실한 실천이 필요하며 국비 조달 등의 재정을 확보

## 5) 2대 핵심사업

## □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 ○ 하구역복원

- 방조제 및 하구둑 개방을 통해 갯벌의 서식지질을 높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생물자원 및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만들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바다숲 조성의 확대 시행과 수산자원조성 사업 계획 수립

### ○ 해안의 해빈, 사구의 침식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및 침식방지대책 수립

### ○ 생물다양성증진사업 추진

- 염전 사업 추진, 역간척 등을 통한 갯벌면적 확보, 염습지 조성 등을 통해 갯벌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종다양성을 확보

### ○ 축산분뇨 이용 효율성 제고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축산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분뇨해양투기 금지 이후 발생한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

## □ 중점관리대상 하천 및 호소의 관리 강화

### ○ 유역별 통합 하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기 수립된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을 고려하여 삼교호 수계 및 서해수계, 안성천수계 등 유역별 통합 하천관리계획 수립 및 중점하천 관리·복원 시행

### ○ 중점관리대상 호소특성별 관리 대책 마련

- 서해안권 대형 담수호를 중심으로 호소 및 저수지의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관리방안(중점 관리대상 호소 지정, 보전 및 관리 대책 마련 등) 마련



부문	정책추진 과제	세부과제	추진단계			추진 주체	핵심 사업
			단기	중기	장기		
환경해권 경제거점 조성	건강한 해양환경조성	· 하구역복원			○	충남도, 해양부	●
		· 수산자원조성계획수립		○		충남도, 해양부	
		· 해빈사구실태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			충남도, 해양부	
		· 생물다양성증진사업추진		○		충남도, 해양부	
		· 가축분뇨이용효율성 제고	○			충남도	
	중점관리대상하 천호소관리강화	· 유역별 통합 하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환경부, 충남도	●
		· 중점관리대상 호소특성별 관 리 대책 마련	○			충남도, 시·군	
	기후변화적응대 책강화	·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제도 화		○		환경부, 충남도	
		· 에너지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 시제도 구축	○			시군, 충남도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 대 및 이용에 관한 제도마련	○			시군, 충남도	
		·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시행을 위한 국비 확보	○			시군, 충남도	
	발전온배수관리 방안마련	· 화력발전소 온배수 해양유출 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 을 수립 및 제도화		○		시군, 충남도	
		· 발전 온배수의 제도적 관리 방안 수립	○			시군, 충남도	

## 부문별 계획 6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1) 대외적 여건

### ○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가와 공급부족, 기르는 어업생산 확대

-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거대 수산물 소비처의 등장, 세계적인 웰빙열풍에 의해 세계수산물은 증가 추세에 있음.
- 전세계 1인 1년당 소비량은 1990년 13.9kg에서 2007년 18.4kg으로 증가,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 12.9kg 2007년 34.4kg으로 2배 이상 증가(FAO).
- 그러나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양식적지의 부족, 양식어종에 대한 사료공급의 한계성으로 인해 수산물 공급부족이 예상되며, 2015년 1,100만톤, 2030년 9,200만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됨(FAO, 해수부).
- 이에 수산물 가격(2011-2020년)은 2001-2010년 대비 어로수산물은 25%, 양식수산물은 50%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FAO, 해수부).
- 또한, 이러한 수산물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68백만톤(2010년 기준) 중 양식수산물이 79백만톤 수준까지 급증함. 양식수산물 비중이 46.9%까지 확대됨(FAO, 해수부).

### ○ 한·중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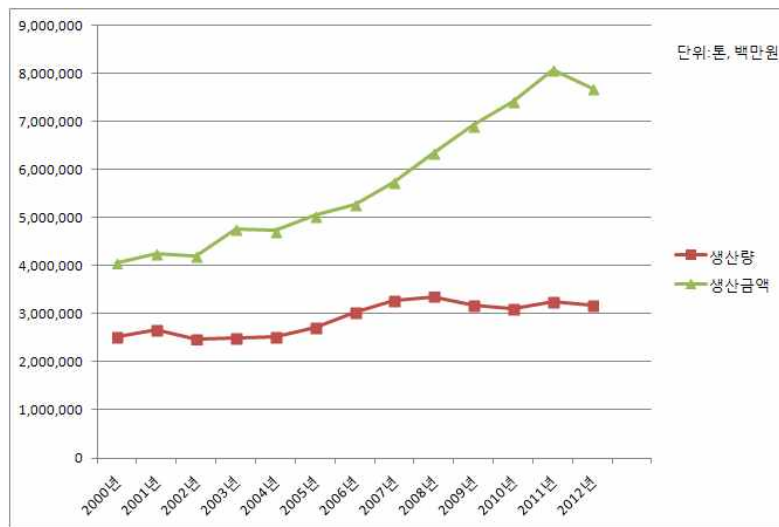
- 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FTA 추진 중에 있음. 현재 46개국 9건 발표 및 체결 중임.
- 최근 협상을 개시한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7건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 제1의 수산물 수출·수입국임을 감안하며, 한·중 FTA는 국내 수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수산물에 대하여 약 10~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 대내적 여건(국정과제 및 정책방향 중심)

○ 수산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자원보전·회복 정책

- 2012년 어업 생산량은 318만톤, 생산금액은 7.7조원으로 2008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에 따라 생산금액이 증대되고 있음. →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자료: 수산정보포털

[그림 2]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과 생산금액

- 이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우리나라는 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와 자율관리어업을 통하여 어업자원을 보존·회복하고, 어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 중에 있음.

○ 수산업의 신산업 동력화 구축

- 인구변화, 경제상황변화, 소비자 구매행태변화 등의 수산물 소비변화에 맞는 시장지향적 산업으로 수산업을 육성
-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보급
-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및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수산가공 산업 지원 확충 및 품질인증제도 강화를 통한 고차식품 산업으로

## 육성

### ○ 행복한 어업인 · 살기좋은 어촌 및 어항기능 고도화

-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수산직불제 강화
- 어촌의 주거·의료·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증진 및 정주공간 정부 추진
- 신규 수산인력 양성 및 유입 촉진
- 맞춤형 특화어항 개발, 민자투자 활성화, 수익 모델발굴 등의 어항기능 고도화, 어항안전 보장 및 신규어항 개발 추진
- 어촌종합개발·어촌관광·어촌체험마을 사업 패키지방식 도입
- 바다생태관광, 레저·스포츠(낚시·관상어)등으로 수산업의 외연확대

## 3) 충남의 여건

- 충남의 어업생산량은 2012년 112천톤으로 전국 연근해 어업생산량 대비 5번째로 큰 생산력을 보유 하고 있음. 또 서해안의 청정해역과 금강이 있어 해수면과 내수면이 고루 발달한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연안에 접하고 있음.
- 또한 충남의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갯벌(35,880ha)이 발달해 있으며, 전남(103,690ha), 인천(87,270ha)을 이어 3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2008년 기준)
- 충남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로는 김, 굴, 바지락, 키조개, 해삼, 주꾸미, 꽃게 등이 있으며, 주로 마을어업을 통한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충남의 어업권
  - 충남의 어선수는 2011년 기준으로 6,005척이며, 전남과 경남을 이어 3번째로 많음.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이 1,795척으로 가장 많고, 서천군 1,435척, 보령시 1,238척임(2012년 충남통계연보).
  - 충남의 어업권수는 총 1,119건이고, 면적은 135,554km<sup>2</sup>임. 마을·정치어업의 건수는 298건이고, 양식어업은 693건, 내수면 어업은 128건으로 충남은 마을어업과 양식어업 세력이 강한 지역임(2012년 충남통계연보).

#### 4) 정책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 한·중 FTA를 대비한 충남 4대 수산물 전략적 육성

- 충남수산 4대 명품화 품목(김, 참굴, 바지락, 해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내수증진 및 중국신흥 시장 개척
  - 바지락을 제외한 김, 굴, 해삼은 대중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월등히 많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해삼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상품화가 이루어지면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큼.
  -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환황해권에서 생산된 품종으로 중국인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서해안 갯벌을 활용한 갯벌어업 육성과 어촌관광 자원화

-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ha당 9,900달러로 농경지 92달러보다 100배이상 높이 평가되고 있음.
  - 갯벌은 어류, 패류, 조류,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며, 홍수조절, 태풍피해 예방, 수산자원,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음.
  - 특히, 서해안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뛰어나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 미국 조지아 주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이에 서해안의 청정 갯벌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키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갯벌관련 연구(정명생 외,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의하면 충남은 갯벌어업 관련 패류양식이 전국 2위, 마을어업 건수 전국 3위로 이미 갯벌을 활용한 어업이 발달된 지역임. 그리고 충남의 대표 수산물인 굴, 바지락, 주꾸미, 해삼 등도 갯벌에서 생산되는 품종임.

- 따라서 서해안 갯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충남 수산업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갯벌 어업의 육성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충남 갯벌 수산물의 통합 브랜드 구축, 다양한 유통망 확보, 갯벌어업 어촌공동체 지원 및 갯벌체험관광 활성화 등의 정책 등이 요구됨.

※ 사례: 독일 와덴해에서 위치한 랑어욱 섬은 갯벌복원 후, 생태적 기능이 회복되고, 철새도래지가 조성되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짐.

#### ○ 갯벌 보존 및 복원, 그리고 생태관광자원화

- 지속가능한 갯벌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이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하여 갯벌환경 정화 및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생태환경 보존과 어업생산성 유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희 농경지, 축제식양식장, 강 하구역에 대한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 또는 연안습지 조성 필요
- 독일 와덴해 사례와 같이 갯벌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반면,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 있음.

※ 사례: 독일에서 관광이 가능한 갯벌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3등급의 관광객 출입 통제구역(절대보호구역, 중간지역, 관광가능지역)을 정해 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갯벌가이드제도를 운영하여, 갯벌가이드가 관광객을 안내하고 갯벌훼손을 감시함.

### □ 서해안 특성에 맞는 어업자원 보존 및 기르는 어업 강화

#### ○ 자율관리어업을 바탕으로 어업인 중심의 어업자원 보존정책 전개

- 지역 어장환경 및 조업여건을 숙지하고 있는 어업인 스스로 어업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정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 ○ 서해안 특성에 맞는 품종(참굴, 해삼, 바지락 등)을 선정하여 양식 적지 개발 및 우수 종묘 확보, 양식기술 개발·보급

- 수산양식을 주도하는 영어법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 어촌의 복지 및 정주여건 향상, 어촌경제 활성화

- 어촌 복지(의료, 교육, 문화) 향상 및 정주여건·생활환경 개선
  - 특히, 도서지역의 교통망 확충, 복지 향상, 생활환경 개선 필요
- 어촌과 도시간의 교류, 도서지역 어촌과 연안지역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상호호혜적 관계형성 유도
- 어가소득 증대와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산업 사회적 기업 육성
  - 서해안 수산 특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는 단체(조직) 육성
  - 어촌계의 6차산업화 유도 및 생산어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어상공연대(농상공연대) 실시
  - 기존 자율관리공동체를 수산업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여건 및 가능성 검토 필요
- 도서 및 연안 관리·이용 확대를 위해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및 체계적 개발 유도, 유인도서와 연계 다양한 섬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양식섬 조성 등 주민 소득확대 기여 및 수산물 생산기지화
- 수산기술과 BT융합을 통한 수산종자산업 육성(Blue Seed Project를 위한 수산신품종개발보급센터 설립, 해양정화식물 개발), IT융합을 통한 해양연구로봇 등 기술개발, ET융합을 통한 친환경에너지(파력, 해양심층수냉난방), 해양바이오에너지(바이오수소, 바이오디젤) 등 원천기술 확보 및 사업화 추진

## 5) 2대 핵심사업

### □ 충남수산 4대 명품화 사업 육성

- 4대 명품화 품목(김, 참굴, 바지락, 해삼)의 6차산업화
  - 4대 품목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가공기술 개발 및 유통·수출 확대

필요

- 다양한 식품개발을 통한 2차 산업화 실시(상품성 증대)
- 현 홍콩 수출 외 중국, 미국, 동남아, 유럽으로의 수출판로 확대

○ 한·중 FTA를 대비한 해삼의 전략적 육성

- 환황해권에 위치한 중국시장공략을 위한 해삼의 전략적 육성
- 해삼 양식기술 확대 및 가공시설 확충, 수출장려 및 지원 필요

○ 효율적 4대 명품화 품목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어가, 가공업체, 유통·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필요

□ 바다복원 및 갯벌어업 육성

○ 기존 유희 농경지, 축제식 양식장, 오염된 담수호, 강 하구역에 대한 해수유통 검토를 통한 바다복원 필요

- 환경보존적 측면에서의 바다복원 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갯벌어업 영위를 위한 경제적 측면도 존재
- 바다복원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

○ 충남 갯벌어업 수산물의 브랜드화 구축

- 충남 어촌계의 대부분은 마을어업 또는 양식어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함.
- 지속적인 갯벌보전을 통하여 갯벌어업 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품개발 및 유통망을 확충하여 충남의 명품 갯벌 브랜드 개발 필요

(끝)

## 충남 환황해 중심 도약 빨간불?

박근혜 지역공약 이행사업에 관련 SOC사업 대거 빠져... 안 지사 등 국비확보 총력 돌입

최재근 기자 | [acjgeun@goodmorningcc.com](mailto:acjgeun@goodmorningcc.com)



승인 2013.07.15 18:53:06

[최재근 기자] 충남도가 내포 신청사 이전과 함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환황해 중심지 도약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와 도로 등 SOC부문 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빠진 탓이다. 이에 따라 안희정 지사와 송석두 행정부지사, 박정현 정무부지사 등 충남도 지휘부는 물론 담당 국장까지 나서 지역 현안과 관련 하반기 국비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으로 SOC부문에서는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건설, 동서5축(보령~울진)고속도로 건설, 충청원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 4개 과제 4개 사업을 반영했다. 하지만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과 서해안권 산업고속도로(대산~당진, 당진~천안), 당진항 연결도로(신평~내항) 등 환황해권 중심지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부문 주요 지역 현안사업은 공약사업에서 빠진 상태이다.

서해선 복선전철화는 충남 홍성~경기 송산 구간으로 장항선과 경부선에 집중된 수도권 수송물동량의 분산 처리와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류수송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구간은 시공 입찰이 진행 중이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산~당진 고속도로와 당진항 연결도로는 신규사업으로 우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들 도로도 모두 서해안 물류 수송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도는 이들 미 반영된 지역현안 사업도 박 대통령 공약사업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을 잇는 도로망 구축을 제시했고 올 4월 4일 충남도청 개청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해안 항만시설 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을 약속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 혜택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원칙에 부합된 이들 사업에 대한 공약사업 수준의 지원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날 안 지사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했고, 담당 국장인 김홍록 건설교통국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역현안 사업을 공약사업 수준으로 지원받도록 지역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가 기재부를 방문해 23건 2820억원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박정현 도 정무부지사는 22일 기재부를 찾을 계획이다.